

한국-멕시코 방송문화 국제공동제작 협약식 출장 결과보고

1 출장 개요

- 행사명 : 한국-멕시코 방송문화 국제공동제작 협약식
- 출장일정 : 2013년 8월 5일(월) ~ 8월 11일(일), 5박 7일
- 출장지 : 멕시코 멕시코시티, 미국 LA
- 행사개요
 - 행사명 : 한국-멕시코 방송문화 국제공동제작 협약식
 - 기간 : 2013년 8월 7일(수), 12시 ~ 14시
 - 장소 : 멕시코 멕시코시티
 - 주요내용
 - 한국, 멕시코 간 첫 번째 국제공동제작을 축하하고, 양국 방송교류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방송문화 국제공동제작 협약식 개최
 - K-Pop 가수(엠블랙), 멕시코 가수(Reik)의 공연을 통한 다큐멘터리 제작 발표 기자회견
- ※K-Pop 쇼케이스(8월 8일(목) 20시, PEPSI CENTER(3,000석 규모))
참가 아티스트 : MBLAQ(한국), Reik(멕시코)

2 출장 주요성과

- 중남미 최대 미디어그룹인 텔레비사(Televisa)를 통한 중남미 진출 거점 확보
 - 한국, 멕시코 최초 다큐멘터리 국제공동제작 협약 체결(8.7)
※텔레비사(Televisa)를 통해 11월, 미주지역(멕시코, 미국, 시청가구 2역)에 방영예정
- 멕시코 등 중남미 지역의 한류 확산 및 K-Pop 진출 계기 마련
 - 텔레비사(Televisa)는 중남미 전역에 앨범 유통 채널 보유
※텔레비사(Televisa) Musica 아르투로 제작총괄과 실무 협의
 - K-Pop가수(MBLAQ) 중남미 진출을 위한 쇼케이스 개최(8.8)
- 콘텐츠코리아 랩 설립 관련 YouTube Space의 인프라 및 운영방식 등 선진 사례 벤치마킹(8.5)
- 할리우드 멘토 간담회를 통해 국내 콘텐츠의 미국 진출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8.9)
※현재 코리안 아메리칸 인 할리우드 멘토 풀 21명 확보

3 한국-멕시코 방송문화 국제공동제작 협약식

- 일시 : 2013년 8월 7일(수), 12시 ~ 14시
- 장소 : 멕시코 멕시코시티 CAMINO REAL 호텔 Salone del sol 룸
- 참석자
 - <한국> : KOCCA 홍상표 원장, 주멕시코 흥성화 대사, 주멕시코 한국문화원 서남교 원장, KOTRA 김광희 멕시코무역관장, K-Pop 가수(MBLAQ)
 - <멕시코> : Televisa Musica 아르투로 총괄, 멕시코 가수(레이크(Reik))
 - 현지언론 : 자상파 'Televis Espectaculo', 멕시코 최대일간지 'El Universal', 연합뉴스 등 24개 현지매체 55명 참여

텔레비사(Televisa) 개요
 △멕시코 지상파 방송사 중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지상파 4개, 케이블 15개)
 △1955년 설립된 스페인어권 최대 미디어그룹(멕시코에 본사 위치)
 △미국, 유럽 채널을 통한 거대 방영 커버리지(시청가구 2억), 미국전역방영

○ 관련 사진



행사장 전경 1

행사장 전경 2



주멕시코 흥성화 대사 축사



KOCCA 홍상표 원장 축사



4 K-Pop 쇼케이스(MBLAQ in Mexico)

- 일 시 : 2013년 8월 8일(목) 20시 ~ 21시 30분
- 장 소 : 멕시코시티 PEPSI CENTER
- 참관객수 : 현지 방송, 음악관계자 및 멕시코 현지 팬 3,000명 참석
- 뮤 지 션 : MBLAQ(한국), Reik(멕시코)

○ 관련 사진



5 멕시코 최대일간지 'El Universal' 인터뷰

- 일 시 : 8. 7(수), 11:00~11:30
- 장 소 : CAMINO REAL 호텔 행사장 VIP 대기실
- 주요내용 : 한-멕시코 국제공동제작의 의미 및 멕시코와의 향후 교류 방안 등

El Universal 개요

△멕시코의 언론 최대 일간지로, 1916년 창간이후 현재까지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등 국내외정보를 전달하는 종합 일간지
 △발행 부수/ 일 : 180,000
 △언어 : 스페인어

○ 관련 사진



KOCCA 홍상표 원장 인터뷰



El Universal TV 인터뷰 방영

○ 보도기사 : 방송 1건, 일간지 2건



6 KOTRA 멕시코 무역관 간담회

- 일 시 : 8. 8(목), 16:00~17:00
- 장 소 : KOTRA 멕시코 무역관
- 참석자
 - KOCCA : 홍상표 원장, 탁정삼 팀장, 정태성 차장, 장인걸 대리
 - KOTRA : 김광희 무역관장, 현연희 부관장, 이정훈 차장

○ 주요내용

- 멕시코 경제동향 및 교역동향
 - 인구(116.2백만명, 중남미 2위), GDP(13,581\$억, 세계 14위)
 - 주요수입국(미국 44,837\$백만, 전체수입의 50.18%) ※한국 3.43%, 5위
 - 주요수출국(미국 68,906\$백만, 전체수입의 78.1%) ※한국 0.32%, 21위
- 멕시코 시장 특성
 - 중남미 전체 GDP의 21%를 차지하는 2대 시장(브라질 44%)
 - 인구 1억 이상 국가중 구매력(PPP)기준 GDP 비중 세계 7위
 - 빈부격차 극심: 상위 8% 백인이 부를 장악, 도시민의 78%가 빈곤층
 - 3대 도시에 상권의 80% 집중 : 멕시코시티(41%), 과달라하라(22%), 몬테레이(21%)
- KOCCA-KOTRA 협력 내용
 - 미국 마이애미 NATPE (Natpe Market) 참가 시 협력 추진
 - KOCCA 신홍시장 진출을 위한 중남미 진출시 적극협력

○ 관련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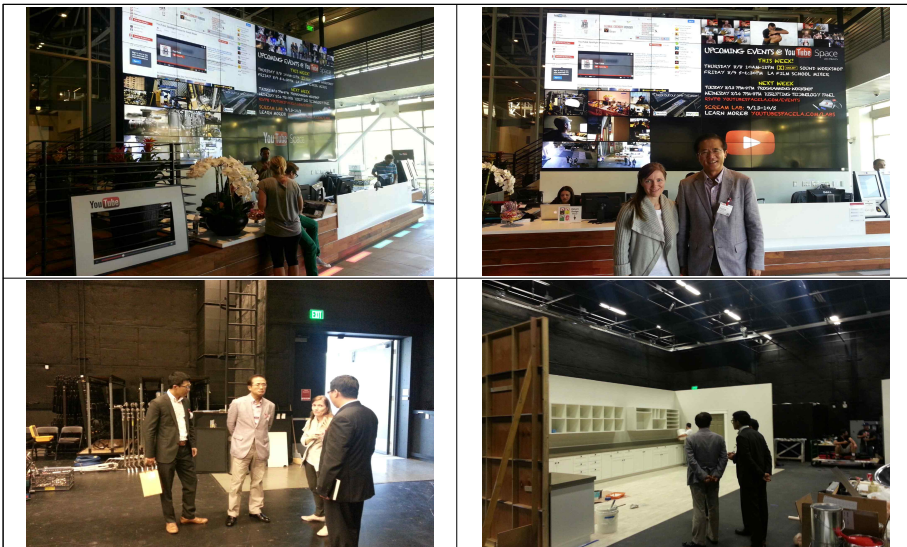


7 YouTube Space 방문

- 일 시 : 2013년 8월 5일(월) 15시 ~ 16시 30분
- 장 소 : 미국 LA 유튜브 스페이스
- 참석자 : Alexandra Bresnan Bronk 운영총괄(HOO)

○ 시설 설명

- 유튜브 스페이스 LA는 현지 콘텐츠 제작자들이 자유롭게 콘텐츠 제작 및 편집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공간으로 2012년 11월 미국 LA에서 개관하여 2013년 2월부터 운영
- 디지털 프로덕션 스튜디오 4개, 그린 스크린 스튜디오 3개, 녹음 스튜디오, 모션 캡처 스튜디오, 리허설/댄스 스튜디오, 스크리닝 룸, 후반 작업 시설, 컴퓨터 편집실, 야외 콘서트홀 등으로 구성
- 고음질 녹음 장비 및 고성능 카메라 장비도 완비돼 있으며, 이러한 장비는 캐논과 코닥과 같은 기술 제조 회사에서 후원
- 3개월마다 누구나 유튜브 스페이스의 이용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며, 시설 이용 기회가 주어지게 되면 언제든지 사용 가능
- 유튜브 스페이스에서 만들어지는 콘텐츠들은 유튜브 웹사이트로 업로드되며, 유튜브 유저들이 흥미있는 고품질 동영상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유튜브 스페이스 LA의 성공에 힘입어 시설이 미국 뉴욕에서도 개관을 준비하고 있음



8 LA주재 특파원 간담회

- 일 시 : 2013년 8월 5일(월) 18시 ~ 20시
- 장 소 : 미국 LA
- 참석자 : 박영환(KBS), 김명진(SBS), 정재훈(YTN), 권훈(연합뉴스)

○ 주요내용

- KOCCA의 미국 진출 관련 주요 사업방향 및 계획 설명

-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창조경제 실현의 한 축을 담당하는 콘텐츠 생태계 구축관련 사업 추진
 - ..콘텐츠 창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구축중인 콘텐츠코리아랩의 참고 사례로서 유튜브 스페이스 방문
 - ..다양한 콘텐츠 창작, 플랫폼을 통해 누구나 할 수 있는 유통/서비스, 관련 금융환경 정착 등이 관건
 - ..이를 통해 한국의 우수한 기획(모바일게임, 앱, 디지털콘텐츠 등)이 미국에 진출하도록 할 예정
- 그동안 추진해왔던 할리우드 주요 기업과의 협력사업(공동행사 등) 강화, 확대 예정
 - ..지난해 나름의 성과가 있었던 사업으로, 올해 좀 더 비즈매칭 중심의 행사로 심화, 확대 예정
 - ..할리우드의 주요 기업과 함께 한국콘텐츠기업 투자 IR 행사 형태로 개최하는 방향 고려중
- 한국콘텐츠에 대한 현지 지원을 통해 진출사례 창출 예정
 - ..'뽀로로', 'Nut Job', '아내의 유혹' 등 유의미한 진출사례들이 올해 다수 발생
 - ..특히, VOD 사이트 등, 온라인 유통의 경우, 한국콘텐츠 미국시장 진입의 유효한 채널로 기능
 - ..이와 더불어, 엔터테인먼트산업 관련 각종 컨벤션, 마켓 등 적극 참가를 병행하여, 시너지 제고

- 향후 KOCCA 및 한국콘텐츠 관련 현지 홍보와 보도 협조방안 등 의견수렴

- 한국콘텐츠의 진출사례가 계속 많아지는 만큼, 한국콘텐츠 미국 진출 관련 기획취재 필요
- 한국콘텐츠 및 감독, 배우 등의 진출사례가 확대되고 있으므로, 관련 취재 기획 및 지원 필요
- 또한, 애니메이션이나 게임 분야는 한국인의 진출도 많고, 앞으로 가능성도 있으므로 관심 요망

9 헐리우드 멘토 간담회

- 일 시 : 2013년 8월 9일(금) 12시 ~ 13시 30분
- 장 소 : 미국 LA
- 참석자
 - Roy Lee(프로듀서, 버티고 엔터테인먼트)
 - Kymber Lim(프로듀서/CEO, 8282 엔터테인먼트)
 - Helen Lee-Kim(굿 유니버스 국제사업부문 대표, 파트너)
 - Jay Kim(파라마운트 픽처스 부사장)
 - Edwin Chung(방송 컨설턴트)

- 주요내용
 - KOCCA에서 코리안 아메리칸 멘토 세미나, 한국 기업과의 비즈매칭 등을 진행해왔음
 - 이제 KOCCA 지원작 중 우수 작품에 대해서 멘토가 미국 측 파트너가 되어 한미공동제작을 하는 등, 구체적 비즈니스 기회 창출 희망
 - 영화/방송 부문에서 해외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한국 프로듀서/감독들이 있음, KOCCA가 이들과 유대를 맺고 지원함으로써, 한국콘텐츠가 미국 진출의 창구로 활용한다면 실질적인 성과 창출이 가능하리라 판단 됨
 - 한국드라마의 경우, 대체적으로 단단한 스토리로 진행되지만 현지 시리즈 포맷(시즌제, 시즌당 20편, 중간광고 등)과 맞지 않는다는 한계 존재, 하지만 전통적인 방송 포맷을 벗어난 미국 케이블 채널을 타겟으로 한다면, 한국 드라마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됨
 - 한국 배우/가수들의 미국 진출이 급증하고 있는데, 이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언어장벽 극복이 중요, 생활영화 뿐만 아니라 연기 및 TV 출연이 자연스러울 수 있는 영어 수준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검토 필요

10 언론 보도

- 한국-멕시코 방송문화 국제공동제작 협약식 및 케이팝가수 공연관련 멕시코 현지 언론 보도현황 게재 리스트

NO	매체	구분	일자
1	Primero Noticias	TV	2013.08.08
2	Primero Noticias	TV	2013.08.09
3	El universal	TV	2013.08.09
4	Televisa	TV	2013.08.09
5	Reforma	일간지	2013.08.08
6	Excelsior	일간지	2013.08.09
7	Milenio	일간지	2013.08.09
8	El universal	일간지	2013.08.10
9	El universal	일간지	2013.08.10
10	Reforma	일간지	2013.08.10
11	El sol de mexico	일간지	2013.08.12
12	한인신문	일간지	2013.08.05
13	Reforma	온라인매체	
14	Yucaton	온라인매체	
15	Grupo Fomula	온라인매체	
16	Informador	온라인매체	
17	Espectaculos	온라인매체	
18	El Porvenir	온라인매체	
19	연합뉴스(멕시코시티)	온라인매체	2013.08.08
20	연합뉴스(멕시코시티)	온라인매체	2013.08.10
총 계		TV 4개, 신문 8개 매체, 온라인 8개 매체 총 20개	

[별첨] 신문 보도내용

1. Primero Noticias (8.8)

-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지원으로 아리랑 TV와 Televisa간 방송문화교류 기념식 현장, 두 방송사가 함께 제작할 음악 다큐멘터리 및 엠블랙 콘서트 관련 소식을 보도
<http://www.youtube.com/watch?v=6ll-QAGwjrs>



2. Programa Hoy(8.9)

- 성공리에 마친 엠블랙의 콘서트 및 멕시코 밴드 Reik과의 방송문화교류 관련 소식을 보도
<http://www.youtube.com/watch?v=hh9NZ4RAEe0>



3. El universal(8.9)

- 엠블랙 공연소식과 방송문화교류 기념식 현장 및 원장님 인터뷰 등을 폭넓게 취재
http://www.youtube.com/watch?v=MU89_OOdSdU



4. Televisa(8.9)

- 엠블랙 공연소식과 레이크와의 공동인터뷰 취재
<http://www.youtube.com/watch?v=TiVwMwt9TrI>



Hace mancuerna Reik con surcoreanos MBLAQ



La banda de k-pop se presentará hoy en el Pepsi Center WTC, donde tendrá a los chicos de Reik como invitados.

REFORMA / Staff

Con la intención de explorar nuevos horizontes la banda mexicana Reik realizará un documental para televisión estilo reality show con uno de los máximos representantes del k-pop: MBLAQ.

En un intercambio cultural, Corea del Sur y México realizarán, a través de Televisa Music y Arirang TV, un programa especial de dos horas, el cual saldrá al aire en diciembre.

“Estamos impactados con el recibimiento que ha tenido MBLAQ en México. El lunes que llegaron los chavos los esperaban 500 fans en el aeropuerto”, dijo Arturo Velasco, productor de Televisa Música.

Ambas agrupaciones han disfrutado de la convivencia juntos, en lugares turísticos como el Centro Histórico y la Lucha Libre.

“Los llevamos al Zócalo, a la Condesa; comimos muy rico en un restaurante de por ahí y los metimos a todos hasta la cocina para que vieran como se hace

la comida tradicional de nuestro país”, explicó Velasco.

A los coreanos, Seunggho, Jung Byunghee, Lee Joon, Cheondong y Mir les ha impactado el recibimiento de sus fans.

“Sabemos que México es un país con mucho amor y mucha pasión. Hemos disfrutado mucho de la comida y de la gente en la calle, pero será hasta el concierto, en el escenario, cuando conozcamos la respuesta del público”, dijo Seunggho, vocalista.

Jesús, Julio y Gilberto, de Reik, destacaron la buena actitud de la banda surcoreana, con la que compartirán hoy escenario en el Pepsi Center WTC.

“Estamos interesados en hacer una canción con ellos; tienen un estándar de calidad muy alto. Por lo pronto, vamos a compartir escenario en el concierto que ofrecerán”, comentó Jesús.

Como parte del intercambio entre ambos países, los intérpretes de “Noviembre Sin Ti” viajarán en octubre a Seúl, donde participarán en un festival de música y realizarán la segunda parte del documental.

5. Reforma(8.8)

- “Reik, 한국의 MBLAQ과 한 쌍을 이루다”란 제하로 8.7(수) 열린 아리랑 TV와 Televisa간 방송공동제작 기념식 내용을 보도

- 멕시코 밴드 Reik은 K-Pop의 대표로 선정된 MBLAQ과 리얼리티 쇼 형식의 다큐멘터리를 만들 예정

- 텔레비사 뮤직의 프로듀서인 Arturo Velasco는 멕시코에서 MBLAQ을 맞이하는 팬들의 모습에 놀랐으며 공향에 500명의 팬들이 기다리고 있었다고 언급

- MBLAQ 멤버 또한 팬들의 환영에 감명을 받았다고 언급했으며, Reik은 MBLAQ이 수준 높은 음악성을 지니고 있으며 무대에서 함께 공연할 것이라고 언급

- Reik은 양국 간 방송공동제작의 일환으로 10월에 서울을 방문하여 한 음악 페스티벌에 참여할 예정

México y Corea, unidos por música Reik y MBLAQ, en concierto

En un intercambio, Corea y México buscarán unir a sus pueblos a través de la música, por lo que alistan conciertos con la banda mexicana Reik y la coreana MBLAQ, además de preparar un reality show y un documental.

Durante una conferencia de prensa, se adelantó que además del espectáculo, realizado ayer en el Pepsi Center, también se trabajará en un documental, creado por Arirang TV en colaboración con Televisa y con el patrocinio de la Agencia de Contenidos Creativos de Corea (KOCCA).

A través de este documental, los telespectadores podrán aproximarse a un universo de diferencias y también de similitudes entre sus pueblos.

MBLAQ, considerada como una de las bandas más importantes del K-pop, realizará visitas turísticas a diferentes puntos de la capital del país, así como a las pirámides de Teotihuacán, Estado de México. Reik visitará la República de Corea por nueve días, en su primera visita por Asia.

“Nos sentimos honrados de representar a la música mexicana en un país en donde creo que ninguna banda o solista connacional ha ido, no sabemos qué esperar en realidad, aquí a ellos los están tratando increíble y esperemos que a nosotros nos traten igual”, indicó Jesús Navarro, vocalista de Reik. (Notimex)

6. Excelsior(8.9)

- 음악으로 하나 된 멕시코와 한국, 콘서트에서의 Reik과 MBLAQ” 제하로 한국과 멕시코는 양국을 음악으로 연결하기 위해 멕시코 밴드 Reik과 한국 그룹 MBLAQ이 콘서트에 함께 섰으며, 한국콘텐츠진흥원의 후원으로 아리랑 TV와 Televisa간 공동 제작 리얼리티 쇼 형식의 다큐멘터리를 제작할 예정

- 이 다큐멘터리를 통해 양국의 시청자들은 서로 비슷하기도 하고 다르기도 한 양국의 모습을 접할 수 있을 것

- Reik은 아직 다른 멕시코 가수가 한국에 갔을 것이라 생각되지 않는데, 한국에서 멕시코 음악을 소개하는 것이 굉장히 영광스럽다며, 멕시코에선 MBLAQ을 환대하는데, 저희도 같은 환영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언급

Televisa y las telenovelas coreanas

Las telenovelas coreanas (doramas) son de lo mejor que hay en el mundo. De veras, los coreanos son unos genios para la construcción de melodramas, para interpretarlos, para producirlos.

Sus historias, cortas, son 100 por ciento compatibles con el público mexicano y su éxito es indiscutible.

¿Por que le estoy escribiendo esto? Porque la gran nota en materia de espectáculos de este momento es el acercamiento que Televisa acaba de tener con Corea para comenzar un intercambio de proyectos.

El primer paso va a ser por el lado de la música. Televisa va a mandar a Reik a Corea y los coreanos nos van a mandar a ese maravilloso grupazo pop llamado MBLAQ.

¿Cuál es la nota? Que esto, si funciona, podría cambiar la historia del espectáculo latino y porque, como no queriendo la cosa, de ahí a que Televisa empiece a hacer refritos de las telenovelas coreanas no falta nada.

¿Se imagina lo que puede pasar? ¿El Canal de las Estrellas las va a hacer mejor o peor? ¿Mi adorable Sam Soon con Érika Buenfil?

¿Y qué va a pasar con la distribución de las versiones originales? ¿Nos las van a empezar a bloquear para satisfacer a Televisa?

Ahí se lo dejo de tarea, porque suena polémico, como el principio del fin. ¿A poco no?



Televisa va a mandar a Reik a Corea y los coreanos nos van a mandar al grupazo pop llamado MBLAQ.

FOTOS: ARCHIVO

MBLAQ da show “chido” a “mamacitas” mexicanas

Jannís Mérida
Clínica de periodismo

Luego de que la gran manta blanca que cubría el escenario del Pepsi Center cayera después de las 20 horas del pasado jueves, MBLAQ desató los gritos y suspiros de sus fans que minutos antes los llamaban cantando el “Cielito lindo” y gritando al unísono “¡México-Corea!”, como celebrando el inicio “oficial” de un intercambio musical entre ambos países.

Elo como producto de las exitosas visitas a México de Wonder Girls (para abrir únicamente el concierto de los Jonas Brothers), Junsu y U-Kiss, y que ahora con MBLAQ y Reik pretenden mostrarse al mundo a través de un reality show en colaboración con Televisa, Arirang TV (Corea) y Kocca (Agencia de Contenidos Creativos de Corea).

“Mona Lisa”, el tema encargado de abrir la noche, no fue más que una forma de calentar las gargantas de los asistentes para corear la segunda canción de la noche “Stay”, y más adelante, con ayuda de un traductor, los ídolos dieron sus primeras palabras.

“Hemos estado en muchísimos conciertos en otros países y en México es el mejor” señaló uno de los integrantes, y compartieron algunas palabras aprendidas. “Hemos aprendido muchas palabras mexicanas importantes como ‘Qué chido’ y una más... ‘Mamacita’”.

Lee Joon demostró con “Throw Away” que es capaz de arrancarle la blusa a una chica (ballarina) y moverse sexy con gran agilidad en el tubo, y ni qué decir de “Thunder”, que con “Don’t Go” bailó ante una silla en la que muchas fans hubiesen querido estar sentadas.

Tras cantar uno de sus temas más exitosos, “Smoky Girl”, los cantantes llamaron al escenario a sus guías en este viaje a México: Reik, con quien cantaron “Creo en ti”. “Seguramente muchas de

Los artistas se encuentran desarrollando un reality junto a Reik, banda que visitará Corea en octubre



EMOCIÓN. MBLAQ desató los suspiros de sus fans que minutos antes los llamaban gritando al unísono “¡México-Corea!”

AGOSTIN SALINAS/EL UNIVERSAL

ustedes se han de preguntar ‘¿Cómo son en realidad?’, y la verdad es que así como los ven de buena onda... son más”, platicó Jesús, y pidió un aplauso para Julio, otro integrante que por problemas de salud no pudo estar esa noche.

Tras una hora de concierto, los integrantes de la boy band se despidieron de México en su primera visita.

“No necesito decir muchas cosas, mi impresión es que tengo que volver muchas veces a México, México tiene pasión y emoción” dijo Mir, y así cada uno de ellos.

El último tema de la noche fue “Livin la vida loca”, que cantaron en compañía del público que agradeció, una vez más que México esté siendo tomado en cuenta para traer a los mejores exponentes del K-pop rompiendo barreras.

MBLAQ “No necesito decir muchas cosas, mi impresión es que tengo que volver muchas veces a México, tiene pasión”

7. Milenio(8.9)

- “Televisa와 한국 드라마”란 제하로 한국 드라마는 세계 최고로 꼽히고, 한국인들은 멜로드라마를 만드는데 천부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

- 멕시코 시청자들은 한국 드라마가 다루는 이야기를 100퍼센트 공감 할 수 있으며, 한국 드라마의 성공은 의심의 여지가 없음

- Televisa는 이제 막 한국과의 교류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첫 단계는 음악으로 Reik을 한국으로 보내고, 한국의 훌륭한 그룹 MBLAQ이 멕시코를 방문하였음

8. El universal(8.10) : MBLAQ, 멕시코 팬들에게 환상적인 쇼를 선사하다

- 지난 목요일 오후 8시, 펍시 센터에서 팬들의 환호와 함께 MBLAQ의 콘서트가 시작되었는데, 시아준수, 유키스 등의 성공적인 멕시코 공연에 이어 방문한 MBLAQ은

밴드 Reik과 함께 Televisa, 아리랑 TV가 공동제작하는 리얼리티 쇼에 출연하기도

- 첫 곡 “모나리자”로 분위기를 뜨겁게 달궜고, 두 번째 곡으로 “스테이”를 불렀으며, MBLAQ은 무대 위 첫 인사에서 “멕시코의 반응이 가장 좋다”고 팬들에게 말한 뒤, 멕시코에서 배운 스페인어 멘트를 선보임

- 그 후 개인 무대와 몇몇 히트곡을 선보인 후 Reik을 초대해 “Creo en ti”를 함께 부르며 무대를 꾸밈

- 한 시간 여의 공연의 막바지에 멕시코에 다시 오겠다는 등 소감을 전한 뒤 “Livin' la vida loca”를 팬들과 함께 부르며 콘서트를 마칩

9. El universal(8.10) : 멕시코와 한국, Reik·MBLAQ과 함께 리얼리티 쇼 예고

- 한국콘텐츠진흥원의 후원으로 아리랑 TV와 Televisa는 리얼리티 쇼를 공동 제작할 예정인 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걸보기에 상반되어 보이는 양국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보여주고자 함

- 약 180개국에 방영될 본 쇼에는 MBLAQ과 Reik이 함께 출연하는 바, MBLAQ은 8일 콘서트에 앞서 멕시코시티 이곳 저곳을 둘러봤으며, Reik은 10월에 한국을 방문할 예정

- 홍성화 주멕시코 대사는 한국과 멕시코는 새로운 걸음을 내딛었으며, 양국의 시청자들 모두 본 리얼리티쇼에 열광할 것이라고 언급

- 홍상표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은 케이팝의 성공이 양국의 공통된 성향에 기인하다며, 특히, 음악을 사랑하고 즐긴다는 면에서 라틴 아메리카와 한국의 국민 성향이 비슷하다고 언급

México y Corea alistan un reality con Reik y MBLAQ

Jannis Mérida
Clínica de Periodismo

Como una forma de mostrar similitudes y diferencias entre dos países aparentemente opuestos como México y Corea, Arirang TV, Televisa y Kocca (Agencia de Contenidos Creativos de Corea) han decidido realizar un reality show que se mostrará en cerca de 180 países teniendo como protagonistas a dos bandas importantes: MBLAQ y Reik.

La primera recorrió algunos puntos de la ciudad antes de su concierto en el Pepsi Center el pasado 8 de agosto, y la segunda visitará Corea en octubre. “Corea y México están dando un nuevo paso y estoy convencido que la audiencia de ambos países, quedará fascinada por este reality show”, comentó el embajador de la República de Corea en México, Seong Hoa Hong.

Mientras que el director de Kocca, Hong Sang Pyo, aseguró que el éxito del K-pop se debe a la similitud entre ambas naciones.

“El temperamento de los pueblos de América Latina y Corea es similar... Especialmente porque estos países en general también aman y disfrutan la música diariamente”, dijo.

Enloquece banda MBLAQ a más de 5 mil fanáticas

Seung Ho, G.O., Lee Jong, Thunder y Mir sorprendieron a las adolescentes con sus coreografías de K-pop.

Dirigieron juegos de luces y hasta balles en un tubo, al estilo de los strippers.

Conquistó grupo surcoreano a 5 mil jóvenes con frases como "mañanacita"

Pocos minutos antes de las 20:00 horas la audiencia entró "Cielito Lindo", para dar la bienvenida a la banda.

Los actores de "Mona Lisa" sonaron y el público respondió con gritos y porras para recibir a Seung Ho, G.O., Lee Jong, Thunder y Mir, que cuestionaron sin fundidos en trajes negros con sus blancos.

Después de interpretar "Stay" y "Ty", los integrantes de MBLAQ entusiasmados a su público cuando, con ayuda de un traductor, afirmaron que México era uno de sus países favoritos.

Cientos de adolescentes celebraron con gritos las declaraciones del vocalista y líder de la banda Seung Ho, de 25 años.

G.O. declaró con "Song For You" en solitario, arrancando incluso lágrimas de las asistentes. El público, mayoritariamente adolescente, gritó de la emoción en compañía de sus padres.

El punto más álgido del concierto fue cuando Reik subió al escenario para cantar con MBLAQ "Creo en Ti" en una versión en inglés. El llanto y el frenesí no tardó en reflejarse en la audiencia.

Julio Ramírez de Reik, no pudo asistir al evento debido a que, según declaración de Jesús Navarro, el vocalista, se encontraba en el quirófano. Por lo que ambas agrupaciones pidieron a la audiencia rezar por él.

Con cuatro bailarines hombres y dos mujeres, MBLAQ realizó el espectáculo con la canción "Intervista".

Después del show las bebidas refrescantes que se vendieron no fueron suficientes, debido a que gran parte de la audiencia era menor de edad.

"Tras casi dos horas de concierto, y 7 canciones, MBLAQ se despidió de una multitud entusiasmada que entró de nuevo "Cielito Lindo" y porras de "México Corea" para despedir a la agrupación.

VIDEO reforma.com/mblaq

Operan a Julio de apendicitis

Aunque durante su participación el jueves en el concierto de la banda surcoreana MBLAQ, Reik no detalló el motivo de la operación de Julio Ramírez, en Twitter informó que se trató de una apendicitis.

Incluso, julio subió en su cuenta oficial una foto en la cama del hospital.

"Con la ayuda de comunicadores que nuestro Julio ya se encuentra en recuperación. Agradecemos todos sus mensajes de apoyo y cariño... los seguiremos publicando."

Julio salió bien de la intervención, informó la banda en Twitter.

"La operación que le practicaron no tuvo ninguna complicación, ahora sólo siguen unos días para que podamos seguir trabajando."

Jesús y Gilberto, de Reik, los acompañaron en "Creo en Ti".

10. Reforma(8.10) : MBLAQ, 5천명이 넘는 팬들을 열광시킨다.

- MBLAQ은 5천명이 넘는 팬들과 함께 노래를 불렀을 뿐 아니라, 멕시코에서 배운 스페인어 멘트로 여성 관중들을 열광시킴

- 공연이 시작되기 전부터 팬들은 긴 줄을 지어 기다렸으며, 공연 시작 몇 분전에는 멕시코의 “Cielito lindo”를 부르며 MBLAQ을 환영함.

- MBLAQ은 “모나리자”, “스테이”, “트라이” 등을 완창 하였고, 통역의 도움을 받아 멕시코가 가장 좋아하는 나라 중 하나라고 말하자 팬들이 크게 환호

- Reik이 MBLAQ과 함께 “Creo en ti”를 열창하자 공연 열기가 최고조에 달함

- 두 시간이 안 되는 시간 동안 MBLAQ은 총 17곡을 선보이며 콘서트를 마무리

Vida Milagros
por Juan José Ortegá

■ Mayrín Villanueva reparte botellas a sus compañeros de "Mentir para Vivir" para una noble causa
■ Rocío Banquells y María Elena Velasco "La India María", regresan al foro de "Corazón Indomable"
■ Lupita D' Alessio y Alejandra Guzmán preparan sus respectivas producciones discográficas
■ Carmen Salinas y Adal Ramones sorprenderán con sus actuaciones en la cinta "Martín al Amanecer"

■ De Televisión
Iniciamos la semana con mucha información en las telenovelas del Canal de las Estrellas. En varias producciones se registran ingresos, salidas y regresos de actores. El primer caso es la despedida de una actriz y ésta se dio en las grabaciones de la historia De que te Quiero, te Quiero. El viernes a la media noche esta producción de Lucero Suárez grabó la última escena de la villana Esmeralda Pimentel, quien hizo caso de madrugada las tomas en que su personaje sufre un accidente. Aunque la bella actriz estuvo involucrada la semana pasada en rumores que apuntaban a un embarazo que ella negó, esta salida de la telenovela podría provocar dudas. Estas escenas del melodrama protagonizado por Livia Brito y Juan Diego Covarrubias las veremos próximamente...

En más de accidentes actuados, en estos días veremos una interesante secuencia de acción lograda por Mayrín Villanueva en la telenovela Mentir para Vivir. La protagonista de esta producción de Rosy Ocampo grabó hace poco estas tomas nocturnas en locaciones de la ciudad que le tomaron más de ocho horas en realizar. Como avances en la trama, tenemos que a raíz de un percance automovilístico, "Oriana" queda

Ya está casi todo listo para el inicio de grabaciones de la etapa de las Audiciones de la tercera temporada del reality musical, La Voz... México. Ya con la presencia de los coaches, a partir del 14 de agosto hasta el 20, se grabará en el foro 5 de la televisora de San Ángel esta primera parte en una escenografía renovada. Otro plan es que Alejandra Guzmán, David Bisbal, Marco Antonio Solís y el dúeto Wisin y Yandel ofrezcan una conferencia de prensa el próximo 19 de agosto para dar a conocer los detalles de su participación en este domingo que inicia el 8 de septiembre por el Canal de las Estrellas.

■ De música
Las grandes figuras de la música están preparando sus nuevas producciones discográficas. Una de ellas es Alejandra Guzmán, quien ya grabó su propuesta dentro del concepto Primera Fila que desde hace algunos años presenta una conocida compañía y que se caracteriza por presentar al artista en un concierto con público en vivo. Con su peculiar estilo, la hija de Sylvia Pinal ensayó un día antes de esta actuación para que todo saliera perfecto en la gran noche ante amigos y periodistas. Durante las cuatro horas que tomó la grabación se hizo un recorrido por temas inéditos y algunos de sus éxitos como Miralo... Mirala, Yo Te Esperaba y otros. Este álbum también incluye duetos con otros famosos, entre ellos Draco Rosa, Mario Dommm, Fonseca y Danny Martín, quienes compartieron el escenario con ella en la ocasión. El lanzamiento de este Primera Fila está programado para el mes de noviembre y al parecer el lugar para esto será en el programa La Voz... México...

La próxima semana Lupita D'Alessio regresará a los estudios de grabación. La espera fue larga para la "leona dormida", pero por fin la cantante pondrá voz a su nuevo álbum que contendrá temas inéditos. Lupita ha prometido que este próximo disco podrá ser uno de los mejores en su exitosa carrera...

Un fenómeno resultó en el Distrito Federal la primera actuación del grupo coreano MBLAQ. En un conocido centro de espectáculos de la colonia Nápoles, este quinteto convocó a cientos de jóvenes, en su gran mayoría mujeres, que manifestaron su euforia por ver a sus ídolos de cerca. El concepto de estos jóvenes se califica como Kpop, y lo mismo interpretan canciones para bailar que baladas. Algunos de sus éxitos se titulan Smoky Girl, Mona Lisa y Crazy. Esta banda se presentó en México por un intercambio cultural entre nuestro país y Corea, por lo que el grupo Reik, con quien también compartieron el escenario en la ocasión sin la presencia de Julio, viajará al Continente Asiático próximamente para cantar ante aquel público. Entre los asistentes al concierto se encontraba el productor Arturo Velasco, quien es pieza clave de este intercambio musical.

11. El sol de Mexico(8.12) : 삶과 기적 - 음악

- 한국 그룹 MBLAQ은 멕시코시티에서 첫 번째 콘서트를 가졌으며, 수 많은 소녀 팬들은 한국 아이들을 가까이에서 볼 기쁨에 현장에 모임
- MBLAQ은 발라드보다 댄스곡을 위주로 활동하며 대표곡으로는 "스모키 걸", "모나리자", "크레이지" 등이 있음
- MBLAQ은 멕시코에서 양국 간 문화 교류의 일환으로 멕시코 밴드 Reik과 합동무대를 펼쳤으며, Reik은 곧 한국을 방문하여 공연을 선보일 예정
- 콘서트에는 이번 음악 교류 프로그램의 제작자인 텔레비사 음악국장 Arturo Velasco가 참석

12. 한인신문(8.5) : 멕시코와 한국, 최초로 공동 다큐멘터리 제작

日刊(월-토)
한인신문
The Korean Newspaper

단체 주요 전화번호
한국문화재단사무국 5252-9990
서울로빈우편집판 6284-3357
대한사이버한인회 5222-9450
대한사이버한인회 01050-7339-8980
인주방송 방송국 04325-2410-2900
KOTRA 서울지부 5214-3172
ONCA 케이시어비 5221-9652

2013년 8월 5일 월요일 T: 5789-2967 / 5522-5026 haninsinmun@hanmail.net

멕시코와 한국, 최초로 공동 다큐멘터리 제작
한국정부 지원으로 멕시코 텔레비사와 한국의 아리랑TV 합작

멕시코는 한국이 부유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나라이다. 특히 유망한
경제와 문화의 중심지이다. 그리고
이 나라의 문화와 예술은 세계
각국에서 인정받고 있다.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이 나라의 경제
와 문화는 더욱 성장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한국과 멕시코
사이의 교류는 더욱 중요하고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한국과 멕시코
사이의 교류는 더욱 중요하고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한국과 멕시코
사이의 교류는 더욱 중요하고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한국과 멕시코
사이의 교류는 더욱 중요하고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한국과 멕시코
사이의 교류는 더욱 중요하고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한국과 멕시코
사이의 교류는 더욱 중요하고
필요하다.

REFORMA.COM

Enloquece banda MBLAQ a más de 5 mil fanáticas

Por los integrantes de MBLAQ, se afirma no fue un accidente para conectarse con el público femenino.

La agrupación coreana se hizo pasar a contar a más de 5 mil jóvenes (según cifras de las organizaciones) que se dieron cita en el Pazo Cordero (ITC), uno que también se hallaron en México.

"Qué están", "mami qué", "muchas gracias" fueron frases escuchadas para que enloquecieran las girls americanizadas del público, en su fiesta femenina.

Ahora de que se eliminan los guantes del evento, una larga fila para el ingreso evidencia mucha efervescencia y emoción en la escena Mexicana.

Poco tiempo antes de las 20:00 horas la audiencia cantó "Dinámite" para dar la bienvenida a la banda.

Los señores de "Dinámite" coreana y el público respondió con gritos y gestic como está en "Bang It", "G.G.", "Lee Ann", "Touch" y "Me", que acontecimientos anteriores en todo tiempo con estos señores.

Luego las integrantes "Iray" y "Ty", las integrantes de MBLAQ enloquecieron a su público cuando con ayuda de un traductor, alternaron que México era uno de sus países favoritos.

"Cambios de direcciones costaron con girls las declaraciones del invitado y todo de la banda, siendo más de 20 años.

G.G. se dio con "Bang It" y "Ty" en un momento crucial (gracias de las señoras de público), inmediatamente alternando, giró de la canción en compañía de sus señores.

El centro más digno del momento fue cuando fue su día al escenario para cantar con MBLAQ "Dinámite" y "Ty" en una versión en inglés. El hecho y el éxito se basó en un momento de la cantante Juli Romeros, de Park, no pudo asistir al evento debido a que, según declaraciones de decir Romeros, al momento se encontraba en el extranjero. Por lo que ambas agrupaciones salieron a la audiencia de la noche por sí.

Con estos señores hombre y sus mujeres, MBLAQ volvió al escenario con la canción "Tremenda".

Como se afirma, las señoras se conectaron con sus señores no fueron escuchadas, debido a que gran parte de la audiencia era mayor de edad.

Tan solo dos horas de concierto y 11 canciones, MBLAQ se despide de una multitud entusiasmada con el tema "Dinámite" y "Tremenda" para dar paso a la agrupación.

Compartir a Julia de González

Aunque durante la participación se cuenta en el momento de la banda coreana MBLAQ, ésta no había sido invitado.

El motivo de la aparición de Juli Romeros, en Touch informó que se trata de una especialista. También, dijo estar en su cuarto oficial una hora en la cama desahogada.



Diario de Educación yucatán.com.mx

INSITU ITC

Enloquece Mblaq a sus fans mexicanos
Reki, el invitado especial del grupo coreano en escena

Cerca de 7 mil personas disfrutaron amañado del concierto que el grupo coreano Mblaq ofreció en el Pazo Cordero de la ciudad de Mérida, a las 8 de la noche.

"Dinámite", el primer sencillo de la agrupación debutó funcionando en el 2016. Fue el tema con el cual la agrupación atravesó la primera "ola" de girls de sus seguidores, en su aparición en escena.

A este tema siguieron "Boy" y "Ty", que con la coreografía de sus coreógrafas dejaron satisfecho a sus fanáticos que no dejaron de vibrar su actuación.

El ambiente romántico se hizo presente cuando G.G. integró en lírica, interpretó algunas de las letras de su material como solista, a que siguieron algunas canciones de la banda, cuyas letras en coreano no fueron impedimento para que las admiradoras de este grupo cantaran las canciones a coro.

A mitad del concierto, Reki hizo su aparición en escena para presentar uno de sus temas en inglés, durante el cual, para sorpresa del público, fueron acompañados a gusto por Mblaq.

Para comprender aún más a sus seguidores, Mblaq "se pasó" al inglés al interpretar el tema en inglés de "Living the life like a" de Rocky Martin.

El grupo se despide del escenario del Pazo Cordero con "Oh baby", su tema debut como agrupación y con el cual iniciaron a atraer girls y susuras ante sus "señoras" japonesas de fans.

Reki estará en octubre próximo a Corea del Sur, donde Mblaq será su destino y donde ya pensará una experiencia inolvidable para los mexicanos, como ahora, ha sido para ellas su experiencia en México - según Contreras Montaño.

Insitu.com.mx

Insitu.mx

Insitu, la más grande de las 11 comunidades de Yucatán.
Compartir noticias
Recepción

Publicidad

Multimedia

Recepción
Recepción
Recepción
Recepción
Recepción
Recepción

Últimas noticias

10:00 Encuentro de niñas con guerra civiliza
10:00 El fortalecimiento de las actividades
10:00 La historia del territorio
10:00 Por qué los niños encuentran, así aprenden por sus padres en México

15. Grupo Fomula



Idioma no impidió que MBLAQ se conectara con fans. Con Maxine Woodside

El grupo mexicano funk, que con la ayuda de Jairo, quien estaba acostumbrado a una intervención quirúrgica participó como invitado para cantar "Clara en O" en una versión en inglés.



Nota



Not

Los integrantes del MBLAQ se presentaron con gran todo en el Pazo Centro de la Ciudad de México, en donde asistieron cinco mil jóvenes que cantaron los temas de esta banda coreana.

El idioma no fue un impedimento para que los integrantes de la agrupación coreana una gran conexión con el público, ya que los cantantes coreanos aprendieron tres palabras en español y que repitieron gustosamente "¡que chido, mamita y muchas gracias!"

Presidido de 25 000 horas, el grupo coreano se mostró con su conocido tema "I Wanna Love", en la que no dudaron en hacer sus mejores pases de baile blanco de negro y blanco.

El grupo mexicano funk, que con la ayuda de Jairo, quien estaba acostumbrado a una intervención quirúrgica participó como invitado para cantar "Clara en O" en una versión en inglés.

Desde que se dio a conocer el concierto y 17 canciones la agrupación se conectó con la música de sus fans.

17



¡NUESTRA SEÑAL EN VIVO! Descarga esta aplicación

¡ENCUENTRANOS EN!

Table with weather information for Mexico, Toluca, and Monterrey.

ÚLTIMAS NOTICIAS

- List of news items including 'Subirgen fugados y sin seguridad en caminos de carreteras', 'Mónica Naranjo transformará el país por un videoclip', etc.

16. Informador



MBLAQ deleita a mexicanas en concierto



El cantante coreano de la banda MBLAQ, quien estaba acostumbrado a una intervención quirúrgica participó como invitado para cantar "Clara en O" en una versión en inglés.

Los integrantes del MBLAQ se presentaron con gran todo en el Pazo Centro de la Ciudad de México, en donde asistieron cinco mil jóvenes que cantaron los temas de esta banda coreana.

El idioma no fue un impedimento para que los integrantes de la agrupación coreana una gran conexión con el público, ya que los cantantes coreanos aprendieron tres palabras en español y que repitieron gustosamente "¡que chido, mamita y muchas gracias!"

Presidido de 25 000 horas, el grupo coreano se mostró con su conocido tema "I Wanna Love", en la que no dudaron en hacer sus mejores pases de baile blanco de negro y blanco.

MINI ART BEAT



El idioma no fue un impedimento para que los integrantes de la agrupación coreana una gran conexión con el público, ya que los cantantes coreanos aprendieron tres palabras en español y que repitieron gustosamente "¡que chido, mamita y muchas gracias!"

Presidido de 25 000 horas, el grupo coreano se mostró con su conocido tema "I Wanna Love", en la que no dudaron en hacer sus mejores pases de baile blanco de negro y blanco.

El idioma no fue un impedimento para que los integrantes de la agrupación coreana una gran conexión con el público, ya que los cantantes coreanos aprendieron tres palabras en español y que repitieron gustosamente "¡que chido, mamita y muchas gracias!"

Presidido de 25 000 horas, el grupo coreano se mostró con su conocido tema "I Wanna Love", en la que no dudaron en hacer sus mejores pases de baile blanco de negro y blanco.



Pregunta de Entrenamiento



ESPECTÁCULOS

MBLAQ deleita a "mamacitas" mexicanas en concierto.

La banda, proveniente de Corea del Sur, ha conquistado al público mexicano tras haberse presentado en un concierto en el que cantó y bailó con sus seguidores.

Los integrantes del grupo coreano se presentaron en un concierto que se celebró en el Pabellón de la Ciudad de México, donde deleitaron a un público que se caracterizó por ser muy joven y muy entusiasta. Los integrantes de MBLAQ se presentaron con un repertorio que incluyó canciones de su álbum más reciente, así como algunos de sus éxitos anteriores.

Los integrantes de MBLAQ se presentaron en un concierto que se celebró en el Pabellón de la Ciudad de México, donde deleitaron a un público que se caracterizó por ser muy joven y muy entusiasta. Los integrantes de MBLAQ se presentaron con un repertorio que incluyó canciones de su álbum más reciente, así como algunos de sus éxitos anteriores.

El Porvenir.mx

México, 18 de agosto de 2013

En Escena
MBLAQ deleita a "mamacitas" mexicanas en concierto

Por: El Porvenir, viernes, 16 de agosto de 2013 08:06 AM

La larga espera ha terminado y seguramente ninguna fan podrá decir que no salió más que satisfecha del concierto de MBLAQ.

México. —(El Porvenir).— es una de las palabras que los integrantes de MBLAQ aprendieron a decir en su visita a México y que no dudaron en decir a sus fans durante su concierto la noche jueves en el Pabellón de la Ciudad de México.

La larga espera ha terminado y seguramente ninguna fan podrá decir que no salió más que satisfecha del concierto, y como no, lo MBLAQ se encargó de hacer la noche inolvidable con su repertorio, sus coreografías y todas las cosas que lanzaron a las chicas, en total que hubo un baño de lágrimas cuando se encargó de bailar y una buena canción en una silla (con Thunder).

Luego de que le ganó mucha simpatía que cubrió el escenario, apenas pocos minutos después de las 20:00 horas, los chicos coreanos deleitaron los gritos y canciones de sus fans que minutos antes del encuentro los habían conocido en "Cielos azules" y girando al ritmo "México-Corea" como celebración al inicio "MBC" de un intercambio musical entre ambos países, producido por las estrellas locales al lado de Wonder Girls que está únicamente el concierto de los chicos coreanos. Antes y al final, y que atrajo con MBLAQ y Rock, pensando en el mundo a través de un final feliz.

"Mama Lora" al tema encargado de abrir la noche, no fue más que una forma de calentar los motores de los asistentes para comenzar la segunda canción de la noche "Dey", y más adelante dedicaron un tiempo para dar las primeras palabras de la noche.

"Hemos estado en muchos conciertos en otros países y en México es el mejor" señaló uno de los integrantes, y continuó con uno de las palabras que han aprendido.

"Hemos aprendido muchas palabras mexicanas importantes como 'Qué chévere' y una palabra más, 'Mamacita'.

Después de esto continuaron la noche con "Thunder", pero sin duda una de las cosas que más encantó a las fans fue ver sus bailar coreanos en el escenario, como Lee Joon, que con Thunder, demostró que no capta de aprender la baile una chica (Santitas), bailar sexy y moverse con gran agilidad en el baile.

Al ser solamente la noche en el escenario, G.O. Thunder, Saungto, Lee Joon y Mi prepararon entre ellos coreos, así y verlos su tema más querido actualmente "Daddy Girl" al momento los fans coreanos entre ellos, y que todo el mundo lo cantó y bailó a su lado.

Profesionalmente "Thunder demostró que también baila mal, y "Daddy girl" fue la canción favorita pero que muchas de las seguidoras querían estar en la silla en la que está integrado todo.

Uniendo a México y Corea, MBLAQ y Rock cantan juntos. A mitad del concierto, MBLAQ tomó el escenario y su momento especial de la noche, Rock, con quien cantaron "Dey en ti".

"Desde que llegamos a México, ahora tenemos unos amigos bien interesantes, cantados a lo mejor saben que es un grupo muy conocido en el mundo" dijeron y bailaron al escenario a Rock.

"Seguramente muchas de ustedes les han de preguntar: ¿Cómo son en realidad? y la verdad es que así como los ven de buena onda, así más "plata" Joon, del vocalista del trío a los asistentes, "Como que se ha pasado bien según los indicadores y bueno, esta noche estamos dos países de los tres de Rock porque otro de los integrantes, Joon, está en el escenario" dijo al músico y pidió aplausos y gritos para el resto de pasar el resto de la noche interrelacionando "Dey en ti" y también le dedicó diciendo que él es profundamente el responsable de que los coreanos vean la palabra "mamacita".

Tres poco más de una hora de concierto dedicando a los seguidores con sus mejores temas, MBLAQ se despidió de México, un país al que consideran querido, y salió una dedicó unas palabras.

"He recibido deo muchas cosas, me impresionó es que tengo que volver muchas veces a México, México tiene pasión y emoción" dijo Mi, mientras que Saungto dijo que "México es un país maravilloso y increíble, de verdad se siente el calor, la emoción y pasión, espero que nos veamos muy pronto", G.O.

por lo tanto, se despidió diciendo "Muchas gracias" en español. Thunder se dijo contento de estar esa noche y Lee Joon finalizó "Esperamos que la próxima vez sea muy pronto, los agradecemos mucho por su amor y este lugar será inolvidable".

El último tema de la noche fue "Love the life here", que cantaron en compañía del público que agradeció, una vez más que México está siendo tomado en cuenta para traer a los mejores exponentes del K-pop.

Lo Interesante

- Sin Seriedad
- México
- Cine Mexicano
- Juegos Interactivos
- La Ley
- Juegos Online
- Deportes
- Noticias
- Noticias
- Noticias

Síguenos En

Facebook, YouTube, RSS, Twitter

Otras Noticias

- Defensores mexicanos, Jorge...
- "Hasta el punto"
- El caso CD se van salir a...
- Se van a tener como con la...

Búsqueda Noticias

Busca una palabra clave para recibir los resultados de noticias

Más noticias de deportes

Vitrina Deportiva

Hamarefeca Digital

El Porvenir

suscripción

A2013

LIGA MX

2013 9.27~11.10 (45일간)

뉴스 포토 그래픽 영상 인터랙티브

Q

▶ 속보 ▶ 남북, 이산상봉 실무협상 시작...추적 상봉 논의

홈

연합시문

정치

북한

경제

IT·과학

증권

사회

전국

종교·다문화

세계

문화

속보

Tweet 0
+1 0
+1 0
+1 0

한국-멕시코, 음악다큐 첫 공동 제작

홍상표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가운데)과 아르투로 벨라스코 멕시코 텔레비사 제작총괄국장(왼쪽), 정영애 아리랑TV 해외프로젝트 총괄 부장이 음악 다큐멘터리 공동 제작을 위한 협업식을 하고 있다.

(멕시코시티=연합뉴스) 이종경 특파원 = 한국과 멕시코 방송사가 처음으로 음악다큐멘타리를 공동 제작한다.

아리랑TV는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의 지원을 받아 7일(이하 현지시간) 멕시코시티의 한 호텔에서 멕시코 최대 방송사인 텔레비사와 방송문화 교류 기념식을 했다.

양측은 양국의 가수 공연과 문화탐방 등의 내용을 담아 '멕시코-코리아 리얼리티쇼'라는 엔터테인먼트 프로그램으로 제작한다.

특히 제작 프로그램은 아리랑TV와 텔레비사를 통해 멕시코를 포함한 미주 등 세계 188개국에 오는 11월부터 방영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를 지원하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멕시코가 미국을 포함한 중남미로 통하는 교두보 역할을 하는 곳으로 우리 콘텐츠산업에 아주 매력적인 시장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홍상표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은 "양국간 콘텐츠산업 교류를 촉진하고 문화·경제적인 협업을 확대하는 가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리랑TV는 이번 사업 성과를 토대로 미주 및 중남미 시장 K팝 확산과 문화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현지 미디어와 다양한 제작을 추진할 예정이다.

코트라 중남미본부도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중남미 진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한국의 K팝 스타인 엠블랙(MBLAQ)은 지난 5일부터 11일 멕시코시티를 방문해 멕시코 3인조 인기밴드인 Reik과 공동 작업을 펼친다.

8일에는 멕시코시티 시내 공연장에서 합동 콘서트를 개최한다.

연예

스포츠

핫이슈

인물

인사·부고·홍보

주요신문

특뉴스·사설

소셜뉴스

보도자료

블로그

서울대생이 폭로한 97%암기법...충격!

오래 살고 싶으신가요?

당첨되면 일천가지도

도시 탈출! 귀농으로 역대 연봉받기

임을 이기는 한국인의 음식

2013 9.27~11.10 (45일간)

뉴스 포토 그래픽 영상 인터랙티브

Q

▶ 속보 ▶ '쌍정모던곡, 중동시 부자발 등산길정 비염까지 운영'

홈

연합시문

정치

북한

경제

IT·과학

증권

사회

전국

종교·다문화

세계

문화

속보

Tweet 0
+1 0
+1 0
+1 0

K팝스타 5인조 '엠블랙' 멕시코 공연 성황

한국의 5인조 그룹 엠블랙이 8일밤(현지시간) 멕시코시티 콘서트홀에서 열린 단독 공연에서 열광하고 있다.<<한국콘텐츠진흥원 제공>>

(멕시코시티=연합뉴스) 이종경 특파원 = K팝스타인 한국 5인조 그룹 엠블랙의 멕시코 공연이 대성황을 이뤘다.

지난 8일 밤(현지시간) 멕시코시티 콘서트홀에서 열린 '엠블랙 2013 멕시코' 공연에는 현지 팬 3천여명이 몰려 '멕시코 한류'를 느끼게 했다.

멕시코를 포함한 페루 등 중남미 지역의 팬들은 공연 시작 1시간 전부터 입장해 '꼬레아-메히코'(코리아-멕시코)를 외쳤고 공연시간 90분 내내 엠블랙의 노래를 따라부르며 환호성을 질렀다.

멕시코에서 인기가 높은 엠블랙의 노래 '모리자'가 흘러나올 때 공연이 절정을 이뤘다.

앞서 3천석의 입장권은 발매가 시작되자마자 수 분 만에 전부 팔려나가기도 했다.

엠블랙은 공연 후 "멕시코는 처음 방문하는 곳여서 약간 긴장도 했지만, 뜨거운 성원을 보내준 팬들 덕분에 아주 즐거웠고 좋은 추억들을 많이 만들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멕시코 3인조 인기그룹 'Reik'도 함께 출연한 이번 공연은 한국의 아리랑TV와 중남미 최대 방송사인 멕시코의 텔레비사가 참여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이 후원하는 공동 제작 프로그램의 일부다.

한국과 멕시코의 문화 교류를 위해 기획된 이번 프로그램은 엠블랙의 멕시코 공연과 'Reik'의 10월 내한공연, 다양한 문화탐방 등으로 구성되며 다큐멘터리로도 제작될 예정이다.

홍상표 콘텐츠진흥원장은 "멕시코의 한류 팬이 7만8천여명에 이른다"며 "K팝 등 국내 문화 콘텐츠들이 중남미로 확산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8일밤(현지시간)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한국 5인조 그룹 엠블랙의 공연에 참석한 현지 팬들이

연예

스포츠

핫이슈

인물

인사·부고·홍보

주요신문

특뉴스·사설

소셜뉴스

보도자료

블로그

서울대생이 폭로한 97%암기법...충격!

오래 살고 싶으신가요?

당첨되면 일천가지도

도시 탈출! 귀농으로 역대 연봉받기

임을 이기는 한국인의 음식